

조선/기계/운송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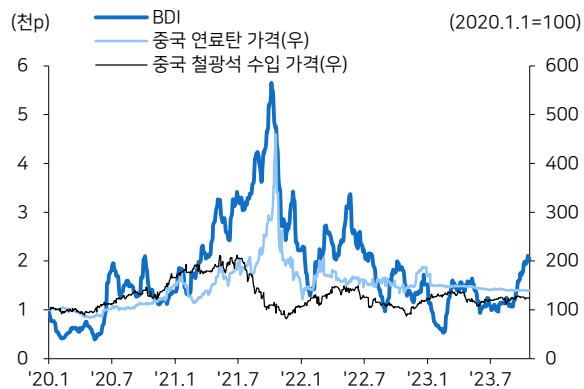
2023. 10. 23 (월)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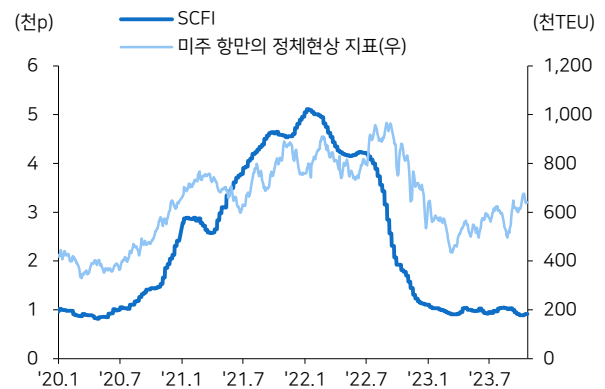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046.0p(-25.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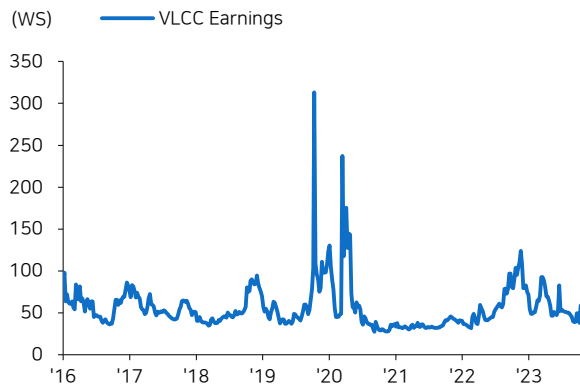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917.7p(+26.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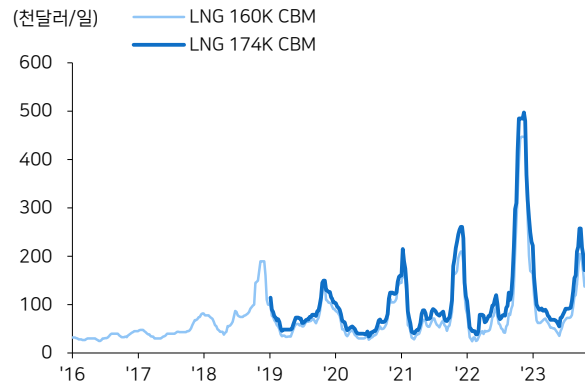


VLCC Spot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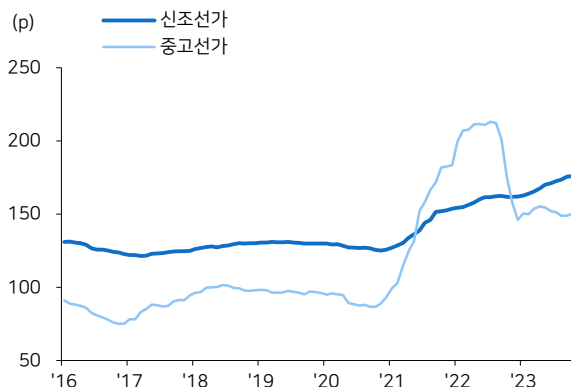
55.4p(-3.4p WoW)



LNG Spot 운임

140.0천달러(+2.5p WoW)
175.0천달러(+3.8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75.9p(+0.3p WoW)
150.1p(+0.7p WoW)

중국 내수 후판가격

522.0달러(-1.0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Fredriksen drilling rig firm to appeal Hanwha arbitration loss

노던드릴링이 한화오션과의 드릴십 중재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도됨. 항소 제기를 위해 주식 공모를 통한 자금도 조달한다고 언급됨. 1차 주식 배정 규모는 300~350만달러로 예상된다고 알려짐. 한화오션은 노던드릴링의 항소가 접수되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임. (Tradewinds) (<https://t.ly/WCCTE>)

주한 中대사관, 중국 비자 신청 간소화... "23일부터 예약없이 신청"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오는 23일(월)부터 중국 비자 예약 신청을 전면 취소한다고 보도됨. 중국 비자 발급의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양국 간 인적 왕래가 편리해질 전망으로 알려짐. (머니s) (<https://t.ly/3pAtl>)

Rising capesize bulker market suggests China may restock iron ore inventory, analyst says

Capesize 벌크시장이 전주대비 개선되며 중국이 낮아진 철광석 재고를 비축하는 신호일 수 있다고 보도됨. 최근 Capesize 운임이 상승했고, 중국항 철광석 물동량이 증가했다고 언급됨. 중국의 철광석 재고는 2020년 9월 이후 처음으로 1억톤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알려짐. 철광석 재고는 2022년 중순~2023년 중순 1.15~1.25억톤 수준이었다고 언급됨. (Tradewinds) (<https://t.ly/UmmOH>)

Gulf of Mexico oil shipping zone resilient in 2023 amid challenges on US east coast

기후변화로 대서양에 대규모 허리케인 발생 빈도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주요 석유 수송 지역 발생 가능성은 적다고 보도됨. 미국 대서양 및 캐리비안해에서 발생 확률이 높고, 주된 석유 수송 지역인 멕시코만의 발생 가능성은 적다고 언급됨. 2023년 6건의 허리케인 중 한 건만이 Corpus Christi에 위치한 3개 정제소 운영에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짐. (Tradewinds) (<https://t.ly/NDhzr>)

Venezuela deal could boost suexmaxes and aframaxes, but not for a while

베네수엘라의 석유시장 일시적 복귀는 탱커시장에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으로 보도됨. 첫 증산 물량은 정제되거나 자국 내 소비될 확률이 높아 원유 및 정유 시장 모두에 영향이 적을 전망으로 설명함. 베네수엘라의 생산량은 2015년 2.9MBPD에서 관리 부실로 2022년 70만BPD로 줄은 바 있다고 알려짐. 다시 3MBPD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수년이 걸릴 전망으로 언급됨. (Tradewinds) (<https://tinyurl.com/2cxx7znx>)

견조한 수주잔량에 일본 슉통 트이나

상당수 일본 조선소들이 2027년말까지 3년 정도의 수주잔고를 확보했지만, 여전히 한국과 중국 라이벌에 생산 능력과 입지를 빼앗기고 있다고 보도됨. 일본은 대폭적인 조선 업체 통합으로 건조 용량이 감소했고, 남은 야드도 낮은 생산 수준에서 운영하며 한국과 중국에 입지를 침식당하고 있다고 알려짐. 그럼에도 조선소 인수 합병으로 일부 조선그룹의 경쟁력은 강화되고 있는데, 니혼 조선소는 Suezmax 탱커를 연달아 수주했고, 컨테이너선 부문에서도 선도적으로 언급됨. (선박뉴스) (<https://tinyurl.com/38kshe9v>)